

보도자료

이 자료는 12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12월호) 발간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권태용)는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기술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12월호) 대경권 부문을 발표하였음
 - 2023년 4/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음
 -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음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12월호). 1부. 끝.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팀장 강기우

Tel : (053) 429-0251 Fax: (053) 429-0219 E-mail : daequer@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BANK OF KOREA

지역경제보고서

2023. 12

본 자료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

최근 지역경제 동향

대구경북 4/4분기 중 경제동향 요약

개황 : 보합

2023년 4/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은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패널, 휴대폰이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철강이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로 감소하고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섬유가 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은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증가로 지역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한편 부동산업은 소폭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비는 소폭 감소하고 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휴대폰, 기계장비,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3년 4/4분기 중 부문별 생산 및 수요¹⁾

	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대경권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생산 및 수요부문 주요동향]

부문	동향
제조업 생산	디스플레이 (증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이 확대되면서 증가
	휴대폰 (증가) 신제품 출시 효과 이연, 해외사업장 생산 증가로 부품 위주로 증가
	철강 (감소) 선박 등 국내 주요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감소
	기계장비 (보합) 수출이 전방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내수가 경기 불안으로 위축되면서 보합
	자동차부품 (보합) 완성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위주의 성장으로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보합
서비스업 생산	섬유 (보합) 미국, 튀르키예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보합
	부동산 (소폭 증가) 수급 상황 개선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소폭 증가
	도소매 (소폭 감소) 음식료품, 의복 등의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
	운수 (보합) 항공 운송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육상 운송이 내수부진으로 감소하면서 보합
수요	숙박 및 음식점 (보합) 외국인 관광객 증가, 단체 행사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증가로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보합
	소비 (소폭 감소) 서비스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의복, 차량연료 등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
	설비투자 (보합)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및 철강 업체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탄소섬유 업체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보합
건설투자 (보합) 민간부문은 주거용 건물 착공실적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보합	
수출 (소폭 증가) 휴대폰, 기계장비,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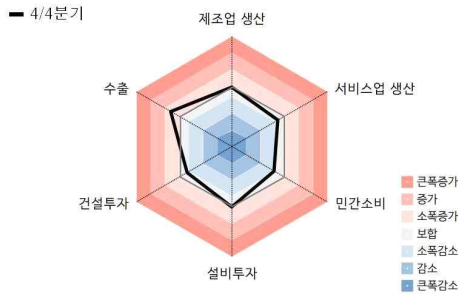
(1) 개황

대경권 경기 포함

2023년 4/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주택전세가격은 하락하였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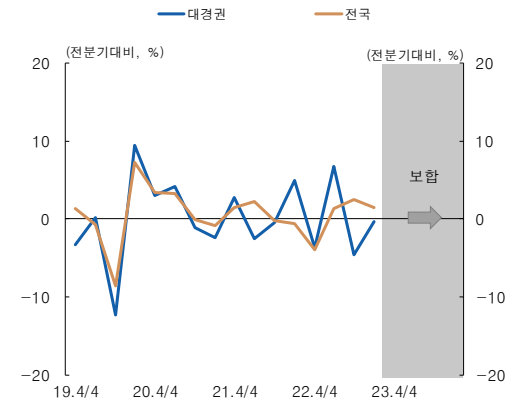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산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부품이 증가하였고 철강은 감소하였으며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섬유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이 확대¹⁾되면서 증가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은 신제품 출시 효과 이연²⁾과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철강은 선박 등 주요 전망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감소하였다.

1) LG디스플레이의 4/4분기 예상 출하면적은 전분기보다 18% 증가한 5,600만㎡이며, 구미사업장 P6공장에서 IT기기 및 차량용 LCD, E5공장에서 차량용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아이폰15는 3/4분기 출시 당시 공급망 운영 문제와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로 판매가 저조하였으나, 4/4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부품 공급사의 설비 증설,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의 자국산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는 수출이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해외 투자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내수가 경기 불안으로 위축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³⁾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위주의 성장으로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다. 섬유는 미국, 튀르키예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⁴⁾하였으나 그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및 부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세로 전환하고 주요 신제품의 조기 출시도 예상⁵⁾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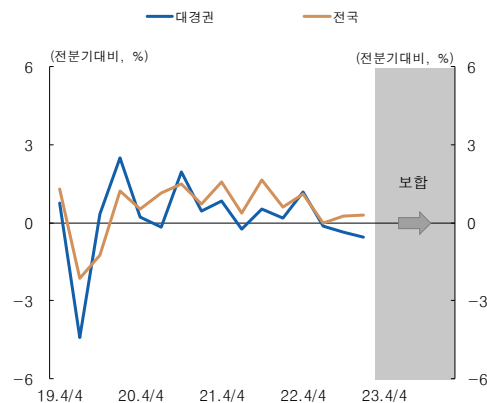
철강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과 엔저 영향으로, 섬유는 중국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은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기계장비는 중국 후발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용 로봇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험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감소하였으며 운수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보험 수준이었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업은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 거래량⁶⁾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할인 폭을 확대한 가전, 가구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의복 등의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3) 2023년 10~11월 중 월평균 자동차 생산은 전분기보다 10.3% 증가(322,244대 → 355,585대), 수출은 12.6% 증가(209,228대 → 235,533대), 내수 판매는 14.0% 증가(109,927대 → 125,290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4) 대미 수출은 대형중견 유통사의 실적 부진으로 섬유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튀르키예 수출도 2023년 8월 부터 시행된 섬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8% → 10%)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5) 2024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S24 시리즈 목표 출하량을 전작보다 11% 이상 늘린 3,500만대로 설정하고 내년 1월 조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대구경북지역 주택거래량은 2023년 10월 8,411건으로 2023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월평균 주택거래량: 2023.1/4분기 6,036건 → 2/4분기 7,971건 → 3/4분기 8,069건, 한국부동산원)

운수업의 경우 항공 운송은 증가세가 지속⁷⁾되었으나 육상 운송이 내수부진으로 감소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단체 행사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증가로 지역 내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⁸⁾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업은 항공 운송에서는 국제선 실적의 순차적 회복⁹⁾으로, 육상 운송에서는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 수도·광열비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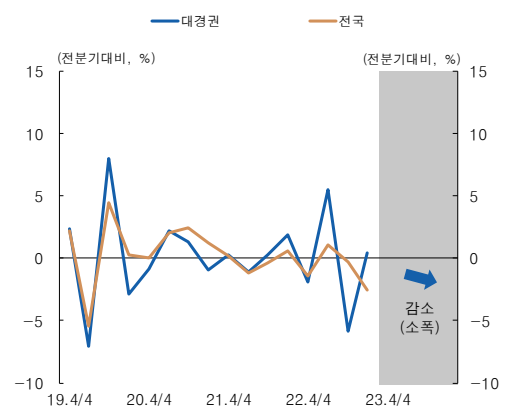
도소매업은 판촉 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진작 정책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분양물량¹⁰⁾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3) 수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는 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심리 또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¹¹⁾되었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의 경우 승용차¹²⁾ 소비가 증가하고 가전, 가구 소비도 대형소매점의 판매촉진 행사 등으로 늘어나¹³⁾

7) 2023년 10~11월 중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월평균)는 1,809편으로 전분기(1,768편)보다 41편(2.3%) 증가하였고 여객수(월평균)도 동 기간 중 28.2만명에서 29.4만명으로 1.2만명(4.3%) 증가하였다.
 8) 2023년 10월 중 경주 보문관광단지 숙박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15.7%, 전분기 평균 대비 4.9% 감소하였다.
 9) 모니터링 결과 대구공항의 4/4분기 국제선 여객수는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1% 수준으로 전망되며 일본노선은 환율 효과로, 중국노선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인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대구광역시 미분양물량은 2023년 3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4분기까지 매월 평균 3.3%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만호 이상의 미분양물량이 남아있으며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입주 물량도 전국 최대인 50,207호가 예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11)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분기(105.2, 월평균)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12)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월평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9,790대로 전분기(8,834대, 월평균)보다 증가하였다.
 13)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가전과 가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1%, 13.3% 증가하였다. 지역 내 유통업체 모니터링 결과 4/4분기 중 혼수 입주수요가 늘어나며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명품 수요 위축, 가을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의복 수요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차량연료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서비스 소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연말 단체 행사가 늘었으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¹⁵⁾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수준¹⁶⁾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며 재화와 서비스 소비 개선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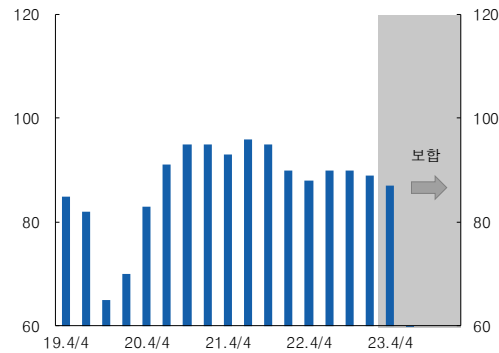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및 철강 업체들은 전망수요의 불확실성,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설비투자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전지¹⁷⁾, 반도체¹⁸⁾, 탄소섬유¹⁹⁾ 업체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소재 조달을 내재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²⁰⁾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해

14)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연료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1% 감소하였다.
15) 포항시는 11월부터 포항사랑카드의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1월, 12월에 각각 200억원, 127억원을 발행하였다.
16)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분기(136, 월평균)에 비해 상승하였다.
17) 엘앤에프가 9월에 완공한 대구의 구지 3공장(양극재 생산 공장)이 내년 3/4분기에 완전 가동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설비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빛캠은 9월부터 상주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설립 중이다. 한편 에코프로씨엔지(포항), SK에코플랜트(경주), 진송SH신에너지(포항)는 2025~2028년 가동을 목표로 연내에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18) SK실트론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3월부터 구미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실리콘 웨이퍼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P3, G3 잉곳 제조공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SK실트론의 올해 1/4~3/4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는 6,278억원으로 전년동기(5,542억원)대비 13.3% 증가하였다.
19) 도레이첨단소재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10월부터 구미4공장 내 탄소섬유 3호기 증설을 시작하였다.
20)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합작하여 내년 1/4분기부터 포항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구에 2조 5,500억원을 투자하여 하이니켈 양극재, 중저가 배터리용 LFP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갖춘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2023.11월 발표)이다.

소되기 전까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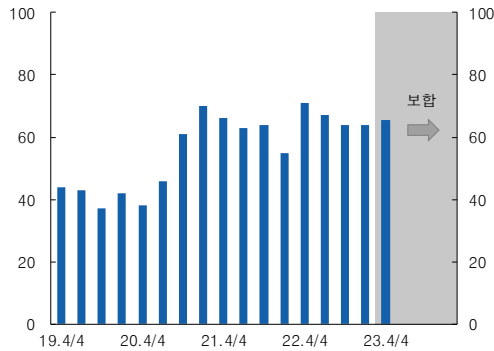
건설투자 포함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거용 건물²¹⁾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 기조²²⁾하에서도 SOC 투자를 꾸준히 진행²³⁾하면서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은 높은 이자비용 부담, 누적된 미분양물량,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²⁴⁾ 등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정부 SOC 예산 증액²⁵⁾, 지방자치단체의 여름철 호우피해 복구 예산 집행²⁶⁾ 등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업황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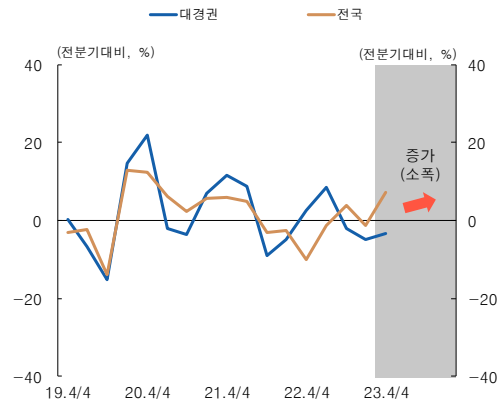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수출 소폭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 및 부품,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철강, 기타정밀화학원료(이차전지 소재)는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 섬유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1) 대구경북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 2022년 -35.7% → 2023년 상반기 -78.2% → 3/4분기 -19.1% → 10월 -25.4%
 22) 대구광역시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보다 6,200억원 감소한 것에 대응하여 미사용 세출예산의 30%는 지출을 취소하고 착공 전인 공사의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연말까지 비상재정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23)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월평균 예산지출액은 4,014억원으로 전분기(4,113억원, 월평균)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지방재정365)
 24) 2023년 3/4분기 중 대구경북지역 상가 및 오피스의 공실률이 전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대구: 중대형 상가 2023.2/4분기 15.9% → 3/4분기 16.1%, 소규모 상가 7.8% → 8.1%, 오피스 10.3% → 10.2%, 경북: 중대형 상가 19.5% → 19.8%, 소규모 상가 6.7% → 6.4%, 오피스 22.2% → 22.3%) 특히 올해 대구 입주상가의 약 91.3%가 주상복합상가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택 미분양이 상가 미분양 및 공실로 이어지고 있다.(부동산114)
 25)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25.0조원(본예산)에서 2024년 26.1조원(정부 예산안)으로 4.6% 증가하였다.
 26) 경상북도는 6~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4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복구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출(일평균)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휴대폰 및 부품은 아이폰 신제품이 고가 라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양산²⁷⁾되면서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는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기기용 패널 출하 호조, 차량용 패널의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 OLED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D램 등 전방산업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실리콘웨이퍼와 집적회로반도체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데다 수출가격도 하락²⁹⁾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기타정밀화학원료도 고가 전기차의 판매 비중 축소³⁰⁾, 주요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조정³¹⁾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은 북미를 중심으로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섬유는 섬유사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직물과 섬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장비는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및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패널 수주 물량 확대³²⁾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및 부품은 신제품 출시에 따라 완제품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가 회복되며 실리콘웨이퍼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³³⁾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글로벌 경쟁 심화가 지속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은 글로벌 완

27) 9월 출시 이후 초기 수율이 저조했던 아이폰15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부품 제조업체의 대량 납품이 4/4분기로 이월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리즈 중 고가의 프로 모델(프로, 프로맥스) 판매 비중이 63~65%로 이전 시리즈(57%)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기계장비의 일평균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36.0%, 대미 수출은 182.8% 증가하였다.

29) 11월 중 철강제품 수출가격은 중국 및 일본산 철강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3.4% 하락하였다.

30)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삼원계(NCA, NCM) 배터리용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31) 리튬 가격의 하락폭 확대(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023.상반기 -30.9% → 3/4분기 -50.4% → 10~11월 -73.2%)가 양극재 판매 단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한국자원정보서비스)

32)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내년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올해 대비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내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전년대비 증가율: 2023년 -14.1% → 2024년 +8.5% → 2025년 +12.9%)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차 시장 수요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는 주요 수출국의 주문 감소,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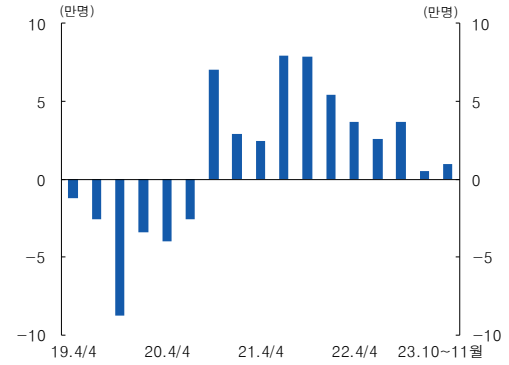
기타정밀화학원료는 신규 수주에 의한 양극재 공급³⁴⁾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며 이번 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0만명 늘어나 3/4분기(+0.6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제조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³⁾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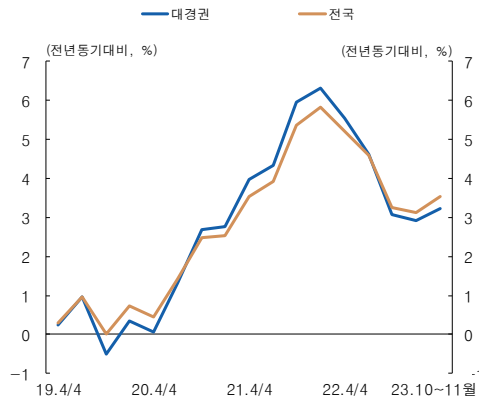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하여 3/4분기(2.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³⁵⁾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과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석유류는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서비스는 외식비³⁶⁾ 상승세 둔화로,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 축소로 전분기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34) 엘앤에프는 2023년 2월 테슬라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2025년 중 3.8조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은 12월 1일 삼성SDI와 2024~2028년 중 44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수주물량은 포항 캠퍼스에서 생산하여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35)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과실 가격은 2023년 3/4분기에 각각 11.2%, 14.6% 상승(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10~11월 중에는 각각 29.6%, 19.8%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6.7% 상승하여 3/4분기(2.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6) 대구경북지역 외식비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전년동기대비, 월평균: 2022.3/4분기 8.8% → 4/4분기 8.7% → 2023.1/4분기 7.5% → 2/4분기 6.8% → 3/4분기 5.3% → 10~11월 4.4%)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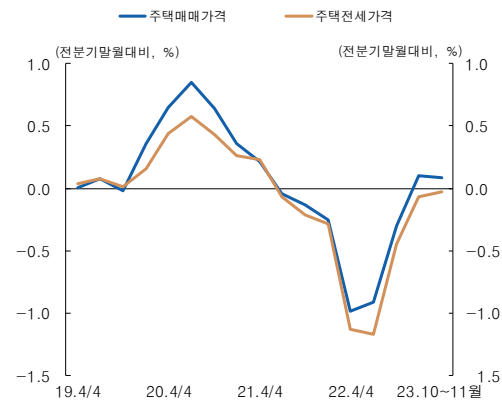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유지, 주택전세가격 하락

10~11월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9% 상승하여 3/4분기(+0.10%)의 상승세를 이어갔다.³⁷⁾ 이는 누증되었던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³⁸⁾되고 일부 지역 내 입주물량도 줄어³⁹⁾들면서 지역주민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진⁴⁰⁾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2023.3/4분기 +0.05% → 2023.10~11월 +0.05%)는 동구와 달서구 등에서, 경북(2023.3/4분기 +0.13% → 2023.10~11월 +0.11%)은 칠곡, 김천 등에서 상승하였다.

10~11월 중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3% 하락하여 3/4분기(-0.07%)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2023.3/4분기 -0.16% → 2023.10~11월 -0.09%)는 달성군, 북구 등에서 부진이 완화되었으며, 경북(2023.3/4분기 -0.02% → 2023.10~11월 +0.01%)은 경주, 포항 등에서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²⁾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37) 다만 매매가격을 월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11월 중 하락 전환(10월 0.13% → -0.03%) 하였으며 경상북도는 증가폭이 축소(0.17% → 0.06%)되었다.(한국부동산원)
- 38) 2023년 10월 대구경북지역 내 주택 미분양물량은 대구가 10,376호, 경북이 7,376호로 금년 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할인분양, 분양승인취소 등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전국 미분양물량 대비 비중은 각각 17.8%, 1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국토교통부)
- 39) 대구지역 내 입주(예정) 물량은 2023년 34,784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2024년 23,457호 → 2025년 10,192호 → 2026년 6,413호) 다만 경북지역 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 증가(2023년 8,842호 → 2024년 23,841호)할 예정이다.
- 40) 2023년 11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102로 7월 이후 기준치(100)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

<참고>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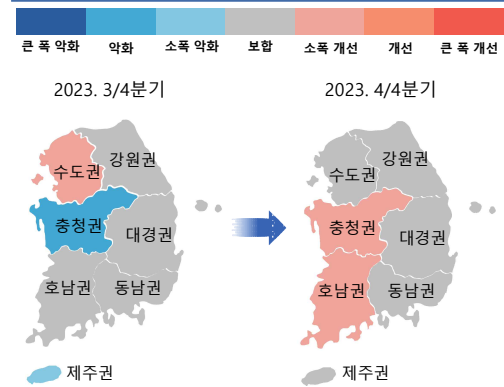
1. 경기 개황

2023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의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운수, 숙박·음식점 등의 성장과 도소매, 부동산 등의 위축이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호남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권역은 보합에 그쳤다.

향후 지역경제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등의 둔화와 석유 정제 및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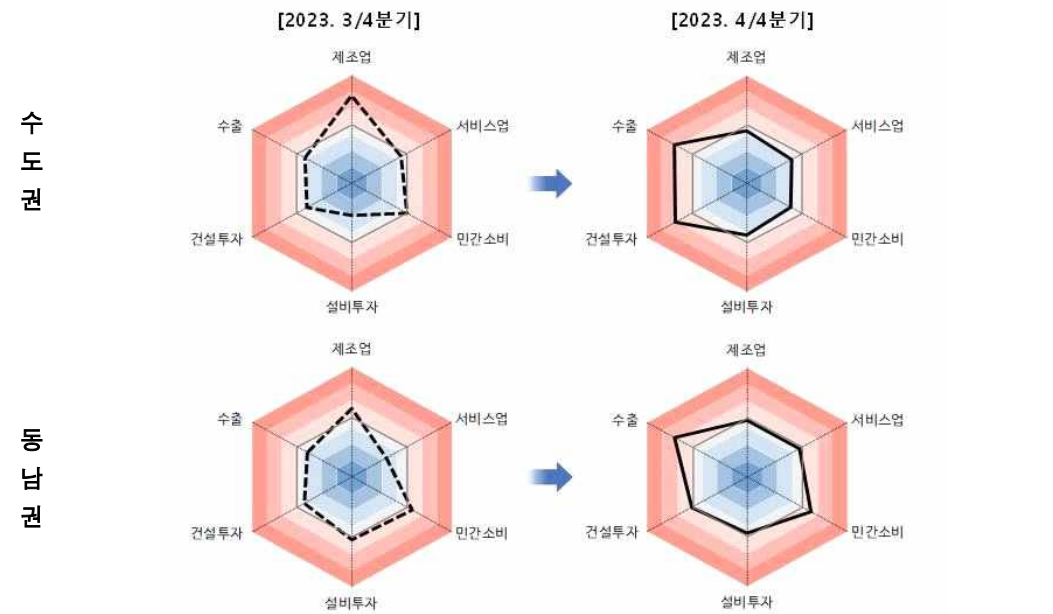
학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이겠으며, 서비스업도 운수를 제외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권역별 경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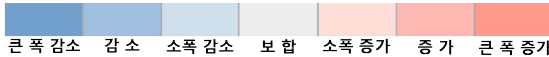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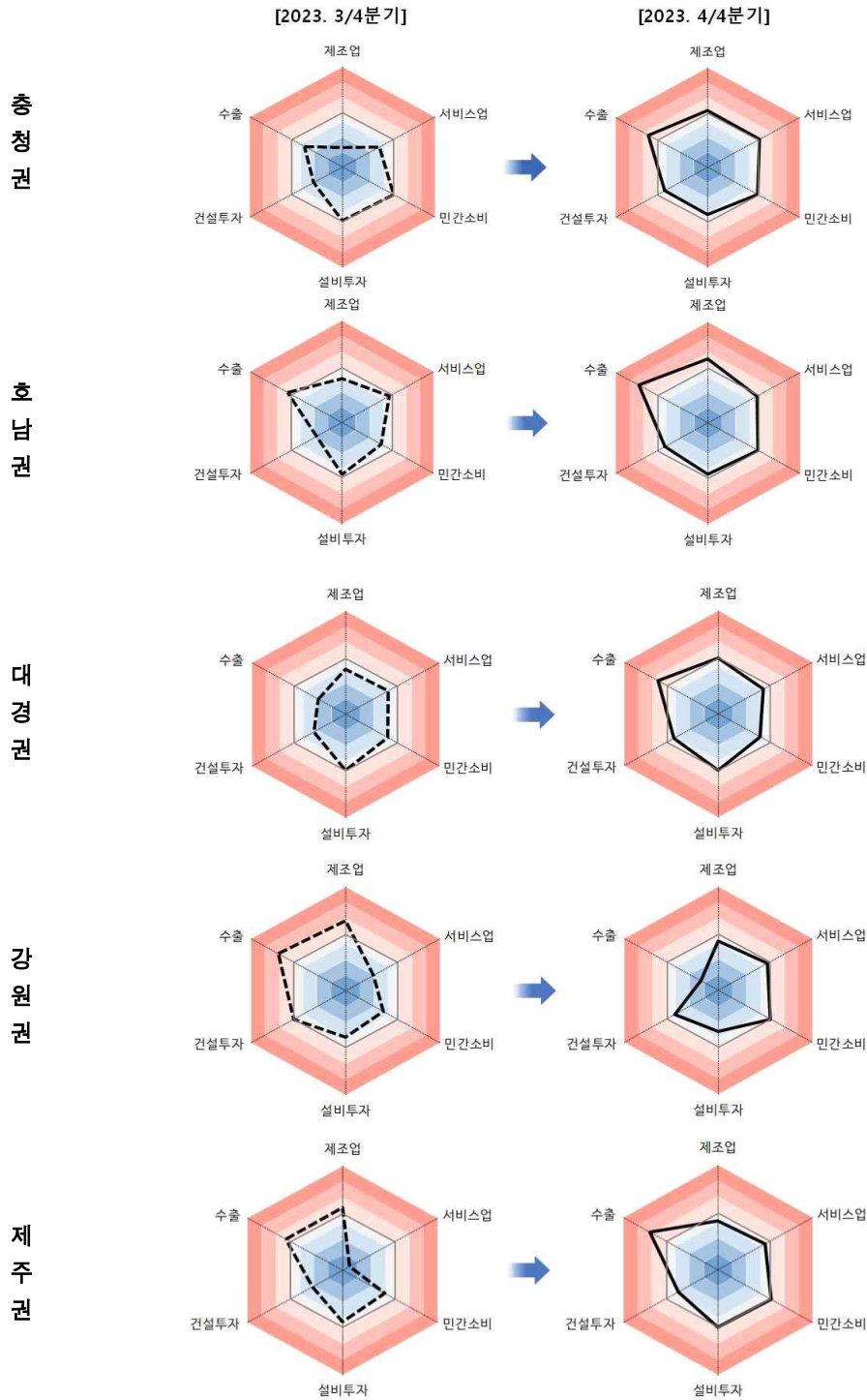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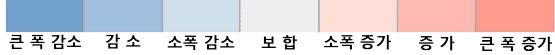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권역별 경기 레이다 추이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2. 생 산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 약화, 국내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선, 기계장비 등은 보합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권역들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가 반등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소폭 성장하겠으나 자동차, 철강·금속 등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 지속으로 보합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운수와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세계 상품 교역 및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 대경권, 제주권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4/4분기 중 권역별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¹⁾

	제조업	서비스업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동 차(▲): 국산 친환경차 선호로 수출 증가 ·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 자동차 OLED 시장 본격화 · 반 도 체(▼): 메모리 반도체 감소 등 · 의 약 품(▼): 합병에 대비한 생산 물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 수(▲): 해운 화물, 항공 화물 및 여객 모두 개선 · 도 소 매(▼):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판매 저조 · 금융·보험(▼): 주식 및 채권 시장 거래대금 감소 · 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 숙박음식점(◇): 높은 외식물가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영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동 차(▲): 북미지역 중심 수출 증가 · 석유 화학(▼): 중국 생산설비 증설, 일부 업체 정기보수 · 조 선(◇): 주주물량 건조 지속 · 철 강(◇): 자동차 생산 증가, 건설경기 위축 · 석유 정 제(◇):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개선, 미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 운 수(▲):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 · 도 소 매(▲): 재화 소비 증가 · 부 동 산(▼): 주택시장 부진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도 체(▲): 재고조정 효과 가시화, 전방산업 업황 개선 · 디스플레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 신제품 출시 · 자 동 차(▲): 신차 수출 증가 · 철 강(▲): 중국의 감소로 공급과잉 다소 해소 · 석유 화학(▲): 에틸렌-니프타 스프레드 확대, 중국 경기 부양 · 전 기 장 비(▼): 유럽지역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차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 수(▲): 여행객수 증가, 해운 물동량 회복 · 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 숙박음식점(▲): 대규모 지역행사 개최,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 도 소 매(▼): 고물가 및 고금리로 구매력 약화
호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화학(▲): 수출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 · 조 선(▲): 양호한 주수량, 인력 수급 상황 개선 · 전자 부품(▼):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감소 · 석유 정 제(◇): 정제마진 축소, 대중국 수출 감소 · 자 동 차(◇): SUV 판매 호조, 일부 업체 공장 가동 중단 · 철 강(◇): 자동차와 조선의 양호한 업황, 건설, 기계 등 수요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 수(▲): 항공운송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 증가 · 도 소 매(▼): 소비심리 회복 지연 · 부 동 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 숙박음식점(▼):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 증가
대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 · 휴 대 폰(▲):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 · 철 강(▼):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 · 기 계 장 비(◇): 전방산업 해외 투자 증가, 내수 위축 · 자동차부품(◇): 완성차 판매 증가세 지속,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둔화 · 섬 유(◇): 주요국 수출 감소, 그 외 지역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동 산(▲): 주택거래량 증가 · 도 소 매(▼): 음식료품, 의복 등 수요 부진 · 운 수(◇): 항공 운송 증가세 지속, 육상 운송 감소 · 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행사 수요 확대, 내국인 관광객 감소
강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선(▲): 해상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요 지속 · 의 약 품(▲): 국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보툴리눔독소신 중국 수출 호조 · 자동차부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완성차 내수 둔화 · 시 멘 트(◇): 국내 건설경기 둔화, 가뭄공된 공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소 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증가 · 부 동 산(▲): 주택 매매거래 증가 · 숙박음식점(▼):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역 방문객 감소 · 운 수(◇): 항공 여객수 증가, 철도 및 버스 이용객수 감소
제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도 체(▲): 홍콩 등으로부터 5G 통신 기기 수요 확대 · 식 음 료(▼): 내국인 개별 관광객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음식점(▲): 내국인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증가 · 도 소 매(▲): 온라인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 행사 ·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 지속 · 운 수(▼): 국내선 운항편수와 이용객수 감소

주 1) () 내는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3. 수 요

민간소비 포함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포함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 및 호남권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소비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으나, 고금리 영향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충청권 및 강원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설비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건설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및 제주권이 증가하였으며, 충청권 및 대경권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권은 감소하였다.

권역별 수출¹⁾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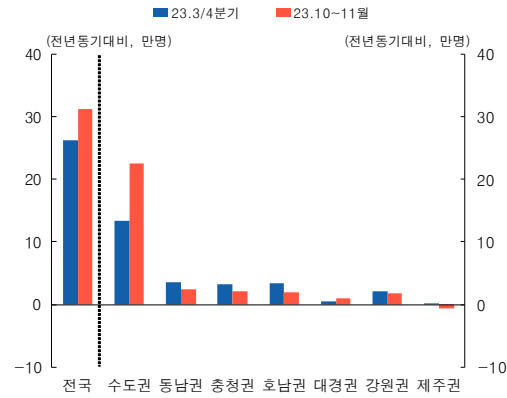
향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증가하며 호남권을 제외한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31.2만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4분기(26.3만명)에 비해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대경권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제주권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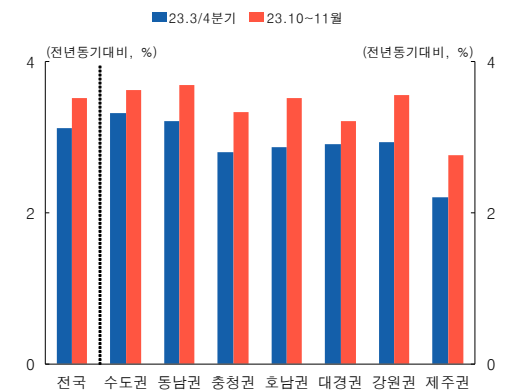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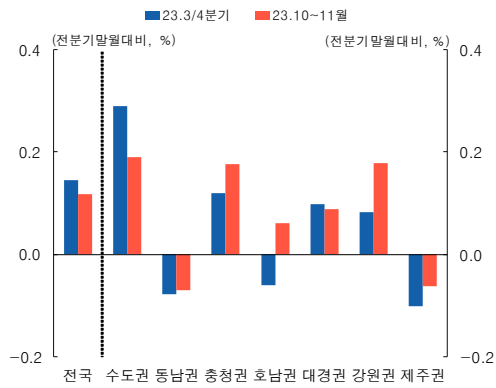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수요 증가 정체로 수도권 및 대경권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청권 및 강원권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반면 동남권 및 제주권의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호남권은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이슈 모니터링: 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설문조사 결과⁴¹⁾

요약

기업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570개 모니터링 업체 해당, 314개 업체 답변, 응답률: 55.1%)한 결과, 팬데믹 이전(2019년)에 비해 2023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상당수 업체가 2019년 대비 2023년 채용경쟁률이 하락하였다고 응답하여 기업(노동수요) 및 구직자(노동공급)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조선업 등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업체는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제 인력수급 불균형 정도는 채용 인원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정원에 미달한 이유에 대해 채용경쟁률이 낮은 업체들은 지원자 부족으로, 채용경쟁률이 높은 업체들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여 필요한 정원만큼 채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채용 정원을 확대(노동수요 증가)한 업체가 채용 정원을 축소(노동수요 감소)한 업체를 초과하여, 기업 구인증가가 인력수급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직종별로 채용 정원을 확대한 가장 주된 이유는 생산·현장·특수 기능직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퇴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사무직 및 연구개발직의 경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도퇴직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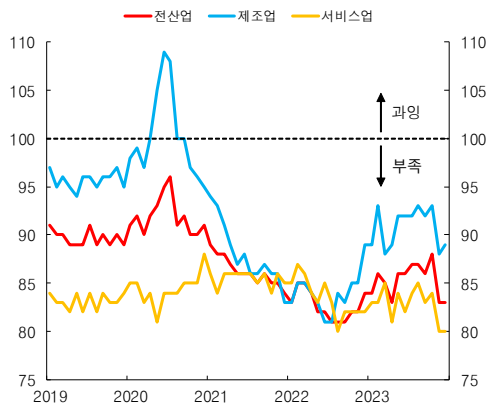
과반수 이상의 업체들이 전체 직종 중 생산·현장·특수기능직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은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채용 증가' 응답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주로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지동화'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직의 경우 주로 '급여 인상·복지 개선' 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 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여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2023년 11월 9~30일 중 지역경제보고서 모니터링 업체(전국 5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314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응답업체의 구성을 보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9.6%, 중견기업 47.1%, 중소기업 23.3%, 업종별로는 제조업 59.9%, 서비스업 34.4%, 건설업 5.7%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엄격한 표본추출에 따라 진행되는 통계조사와 달리 대상업체가 편중되어 있어 조사결과가 모집단(국내기업 전체 또는 각 업종)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 검토 배경

지역 고용상황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가율을 상회하여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정도는 팬데믹 이전 대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2019년 3/4분기 대비 2023년 3/4분기 중 4.8% 증가한 가운데 권역별로도 대부분의 권역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전산업 인력사정전망 BSI는 2019년 3/4분기 대비 2023년 4/4분기 5p 하락하였으며, 대부분의 권역에서 구인증가율이 구직증가율을 상회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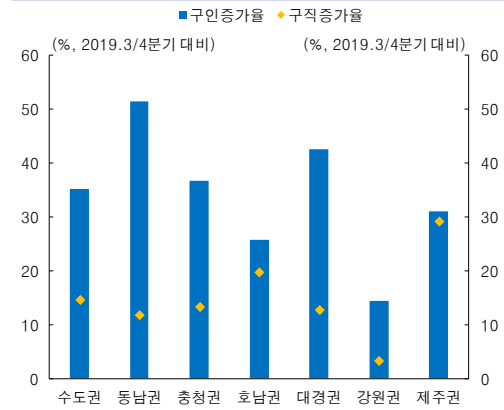
그림 1. 업종별 인력사정전망 BSI¹⁾



주: 1) 인력사정전망 BSI는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부족」 응답업체 구성비(%)+100으로 계산되며, 100보다 높을 경우 인력사정전망이 「과잉」인 업체들이 「부족」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권역별 구인구직 증가율¹⁾



주: 1) 2023.3/4분기 기준
자료: 고용행정부계 워크넷

이에 전국 570개 모니터링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팬데믹 이전 대비 인력수급 현황, 기업 노동수요 변동 원인, 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일반 사무직, 연구개발직의 ① 2019년 및 2023년의 채용 경쟁률 및 인력부족 현황, ② 2019년 대비 2023년의 채용 정원이 변동된 이유, ③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II. 인력수급 현황²⁾

1. 인력 부족 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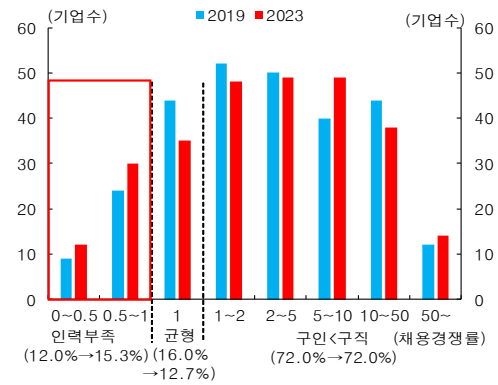
조사대상 업체의 15.3%가 2023년 ‘인력부족’으로 응답하여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업체수 비중 12.0%)에 비해 증가하였으며⁴³⁾,

42) 인력수급 현황 중 기업의 노동수요가 구직자의 노동공급을 초과한 상태인 ‘인력부족’ 상태를 중심으로 설문결과를 작성하였다. 채용경쟁률 구간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력수급 상황을 ‘인력부족(0:1~0.5:1, 0.5:1~1:1), ‘균형’(1:1), ‘구직자 경쟁 과열(구인<구직)’(1:1~2:1, 2:1~5:1, 5:1~10:1, 10:1~50:1, 50:1 이상)로 분류하였다.

43) 인력수급 상황이 ‘균형’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2019년 16.0%에서 2023년 12.7%로 감소하였으며, ‘구직자 경쟁 과열’로 응답한 업체 비중은 2019년과 2023년이 모두 72.0%로 동일하였다.

응답업체의 22.2%는 2019년 대비 2023년 채용경쟁률이 하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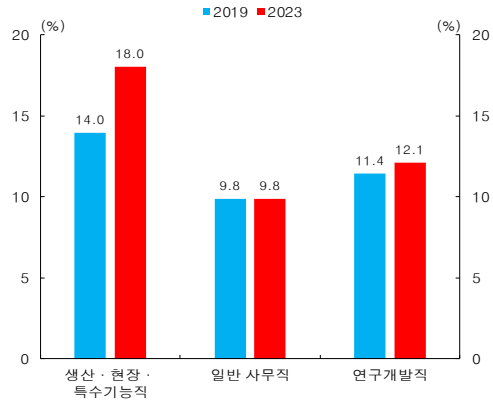
그림 3. 채용경쟁률 구간별 업체수 및 비중¹⁾²⁾



주: 1) 전체 직종 기준, 채용경쟁률 구간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력수급 상황을 '인력부족' (0:1-0.5:1, 0.5:1-1:1), '균형' (1:1), '구직자 경쟁 과열(구인<구직)' (1:1-2:1, 2:1-5:1, 5:1-10:1, 10:1-50:1, 50:1 이상)로 분류하였음
 2) () 내는 2019년 및 2023년의 전체 업체수 대비 각 구간('인력부족', '균형', 구직자 경쟁 과열')의 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설문조사 결과,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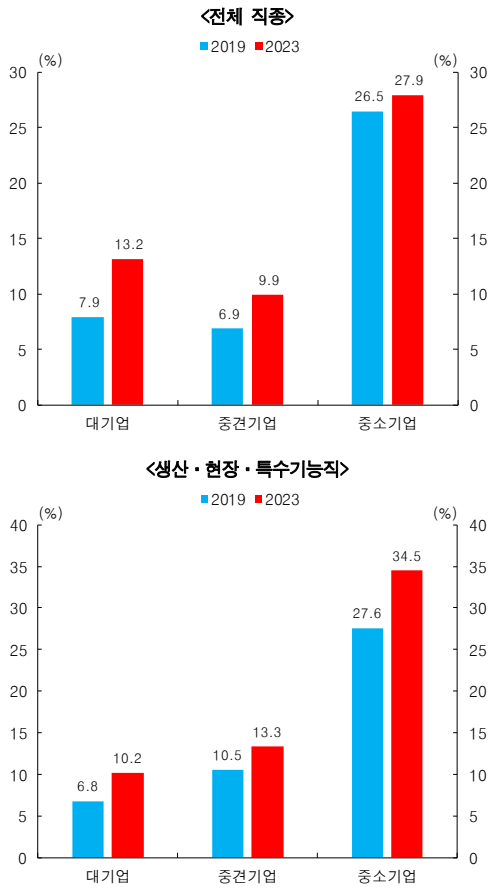
직종별로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조립, 서빙, 운전 등 포함), 연구개발직, 일반 사무직(판매·서비스 등) 순으로 '인력부족' 응답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용경쟁률이 하락한 업체 비율도 생산·현장·특수기능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직종별 인력 부족 업체 비중



기업규모별로는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내에서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2023년 기준 27.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직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인력부족' 응답 업체 비율이 높았으며, 생산·현장·특수기능직에서는 중소기업(34.5%),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인력부족' 응답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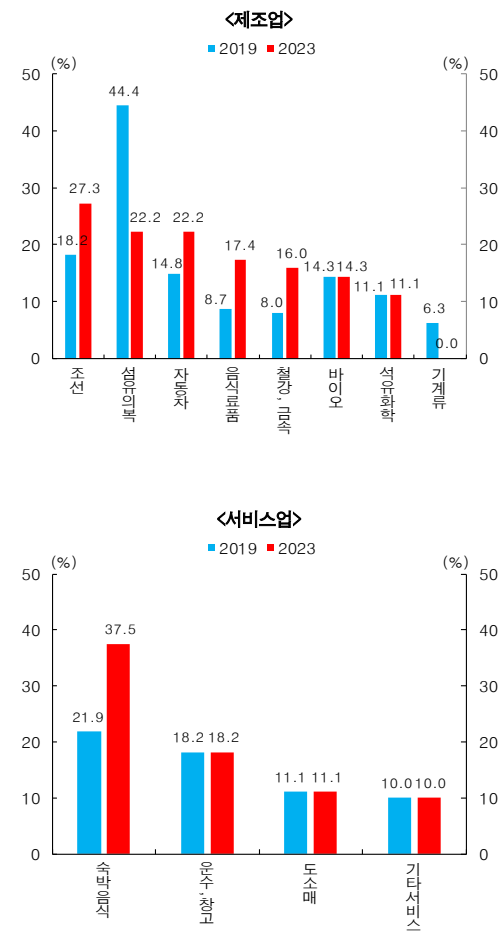
그림 5. 기업규모별 인력 부족 업체 비중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이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는데⁴⁴⁾,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업(2023년 기준 27.3%), 섬유·의복 및 자동차(22.2%) 등의 순으로,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37.5%), 운수·창고업(18.2%)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⁵⁾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위주로 인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조선업은 2019년에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인력부

족’ 응답업체가 10.0%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30.0%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채용경쟁률이 하락한 업체의 비중도 제조업 중 조선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업종별 인력 부족 업체 비중(전체 직종)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2019년 대비 2023년에 ‘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이 증가하였으

44) 건설업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에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이 모두 13.3%로 동일하였다.

45)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표본이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에 편중되어 있어 설문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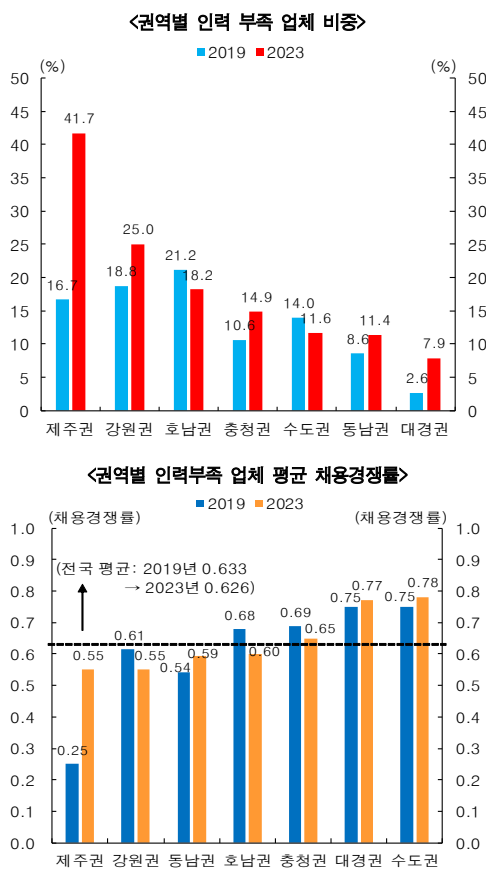
며, 제주권, 강원권, 호남권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업체의 평균 채용경쟁률은 제주권, 강원권, 동남권, 호남권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2.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계획에 미달한 업체 비중

한편 업체의 23.5%는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계획 인원수(이하 필요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응답⁴⁶⁾하였으며, 필요 정원 미달 업체의 41.8%는 ‘인력부족’, 6%는 ‘균형’, 52.2%는 ‘구직자 경쟁 과열(구인 < 구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필요 정원 미달 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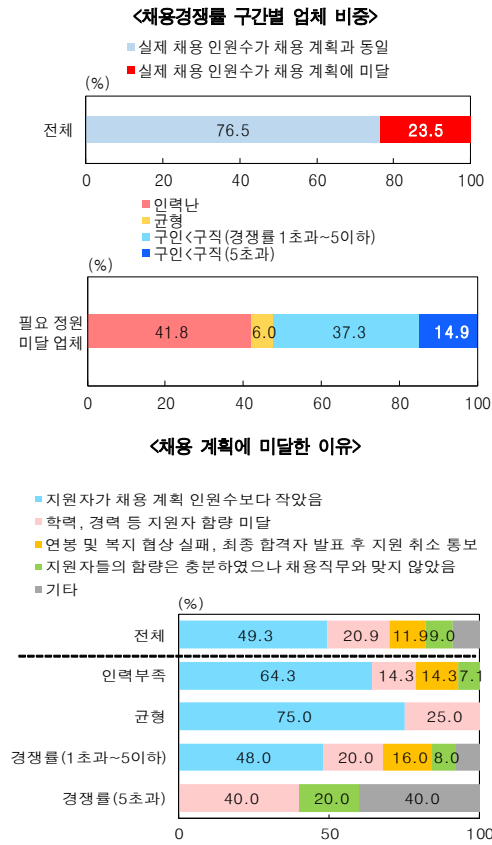
필요 정원 미달 업체 중 ‘인력부족’, ‘균형’ 상태의 업체들은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계획 인원수에 미달한 이유로 ‘지원자가 채용 계획 인원수보다 작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구직자 경쟁 과열’ 상태의 업체들의 경우 채용경쟁률이 높은 업체일수록 지원자 부족보다는 ‘학력, 경력 등 지원자 함량 미달’, ‘지원자들 함량은 충분하였으나 채용직무와 맞지 않았음’을 필요 정원 미달 이유로 선택하였다.

그림 7. 권역별 인력 부족 업체 비중(전체 직종)



46)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2023년에는 2019년에 비해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필요 정원 미달 업체 비중은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계획 인원수에 미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 현황(인력부족, 균형, 구직자 경쟁 과열 여부)에 따라 2023년에도 2019년 결과와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계획에 미달한 업체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7%, 29.8%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채용 정원 확대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나, 중견 및 중소기업은 ‘중도퇴직자 증가’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으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중도퇴직자 증가’로 인해 채용 정원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축된 인원을 보충’ 응답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기업의 노동수요 변동 원인⁴⁷⁾

1. 총 채용 정원 변동 원인

2019년 대비 2023년에 채용 정원이 변동(확대 또는 축소)된 업체 중 56.9%는 채용 정원을 확대(노동수요 증가)⁴⁸⁾하였으며, 그 이유는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30.8%), ‘중도퇴직자 증가’(28.1%), ‘정년퇴직자 증가’(15.8%)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연령은 중도퇴직자인 20대와 30대가

47) 기업의 노동수요 변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채용 정원이 변동(확대 또는 축소)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48) 전체 응답업체(3147개) 중 2019년 대비 2023년에 채용 정원을 확대한 업체는 153개이며, 116개는 채용 정원을 축소하였고, 나머지는 정원 변동이 없었다.

그림 9. 기업 총 채용 정원 확대(노동수요 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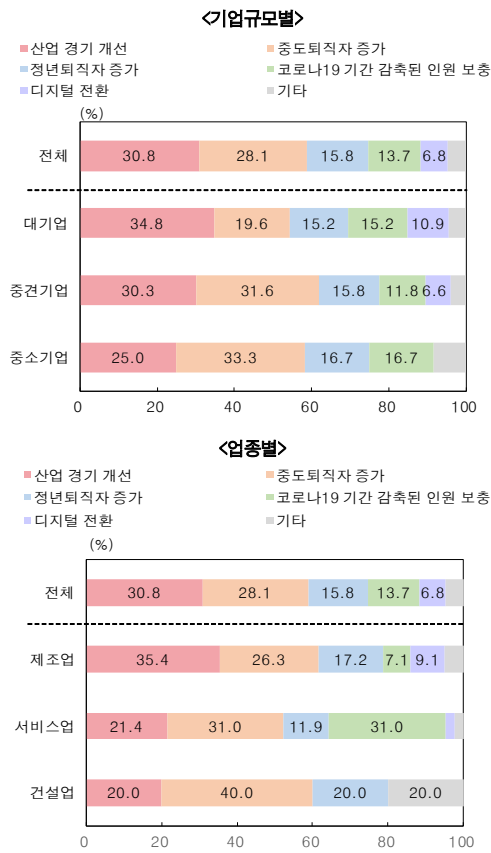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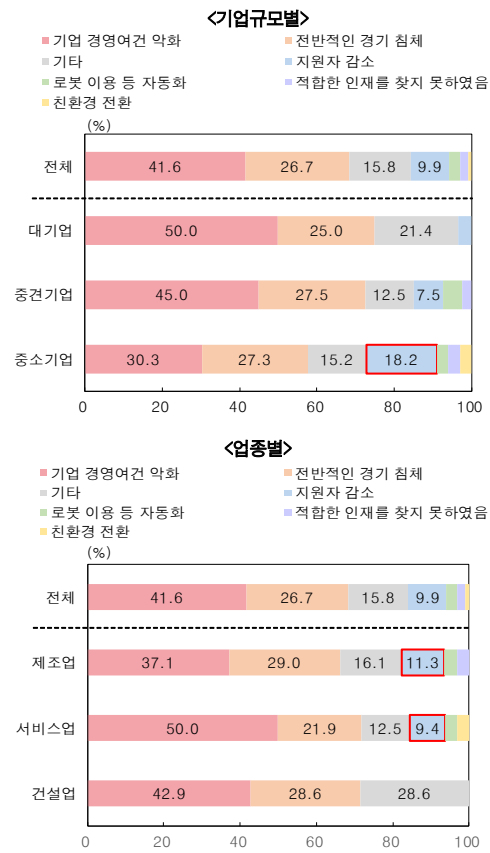


그림 10. 기업 총 채용 정원 축소(노동수요 감소) 이유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43.1%는 채용 정원을 축소(노동수요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기업 경영여건 악화’(41.6%), ‘전반적인 경기 침체’(26.7%)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로도 전체 응답업체에서 ‘기업 경영여건 악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체의 경우 채용 정원을 축소한 이유로 ‘지원자 감소’를 응답하였다.

2. 직종별 채용 정원 확대 원인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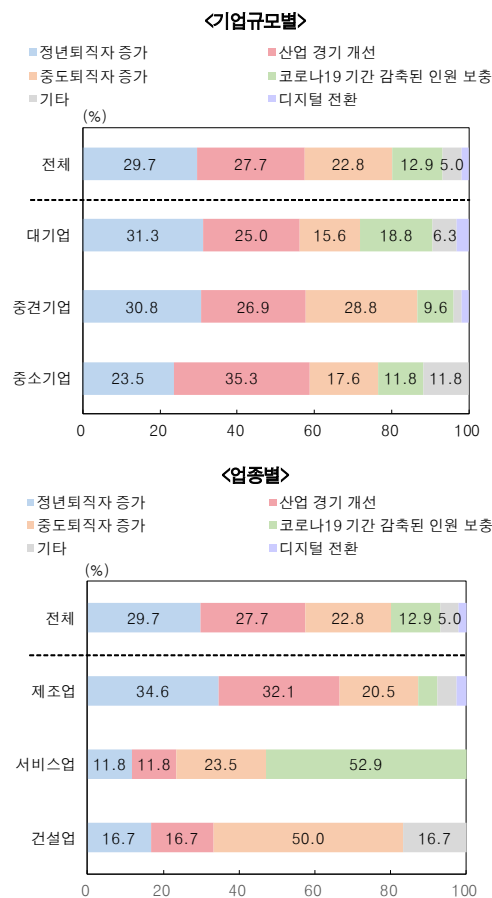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50.7%는 생산 현장특수 기능직 채용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정년퇴직자 증가’(29.7%),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27.7%), ‘중도퇴직자 증가’(22.8%)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연령은 정년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다.

49) 채용 정원 축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직종별 및 규모업종별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채용 정원 확대의 원인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정년퇴직자 증가'를 채용 정원 확대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응답한 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정년퇴직자 증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축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건설업은 '중도퇴직자 증가'를 선택한 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11. 생산현장특수 기능직 채용 정원 확대 (노동수요 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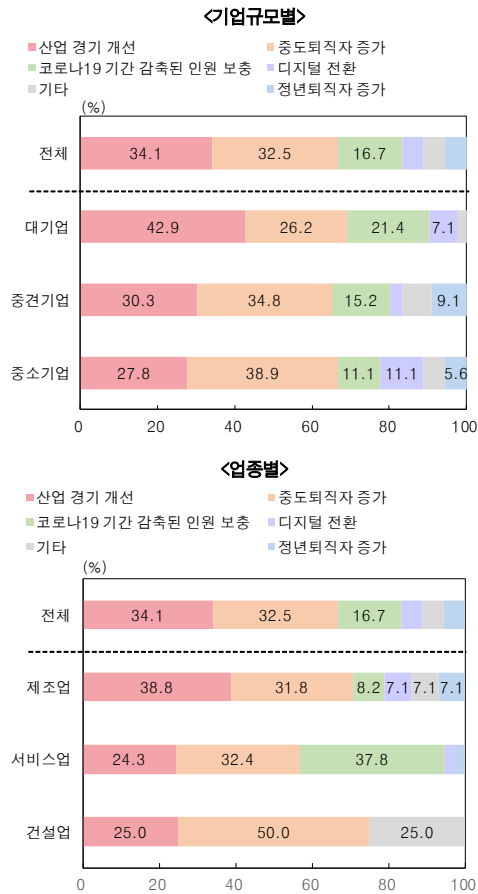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61.4%는 일반 사무직 채용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34.1%), '중도퇴직자 증가'(32.5%)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연령은 중도퇴직자인 3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3%, 31.7%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채용 정원 확대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중도퇴직자 증가'를 가장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축된 인원 보충', 건설업은 '중도퇴직자 증가'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12. 일반 사무직 채용 정원 확대(노동수요 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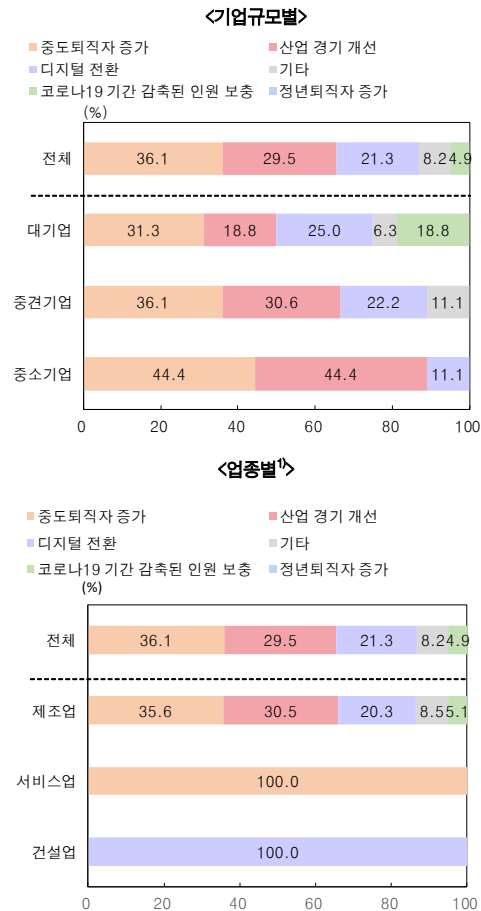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67.6%는 연구개발직 채용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중도퇴직자 증가’(36.1%), ‘산업 경기기업 경영 여건 개선’(29.5%), ‘AI관련 수요 증가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21.3%)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연령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중도퇴직자 증가’를 응답한 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중도퇴직

자 증가’ 등을, 건설업은 ‘AI관련 수요 증가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⁵⁰⁾

그림 13. 연구개발직 채용 정원 확대(노동수요 증가) 이유



주: 1) 다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연구개발직 채용 정원을 확대한 기업수가 많지 않아 설문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0) 다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연구개발직 채용 정원을 확대한 기업수가 많지 않아 설문조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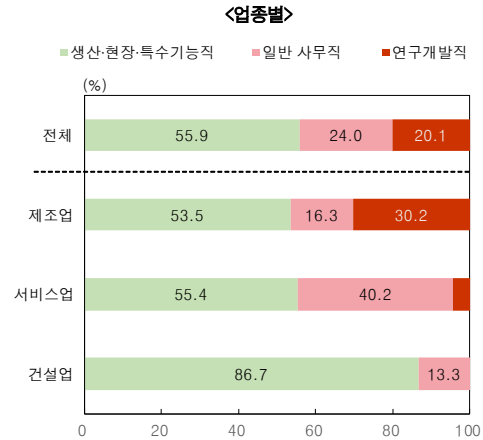
III. 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대응방안⁵¹⁾

1.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직종

조사대상 업체의 55.9%가 전체 직종 중 생산·현장·특수기능직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71.4%가 생산·현장·특수기능직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견기업은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외에도 연구개발직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86.7%가 생산·현장·특수 기능직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생산·현장·특수 기능직 외에도 각각 연구개발직, 일반 사무직 인력이 부족한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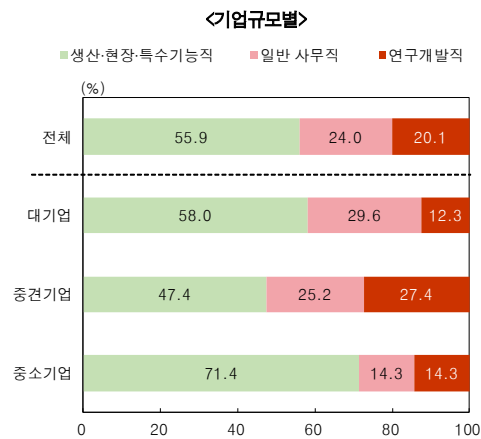
2. 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생산 현장·특수기능직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는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28.1%), ‘급여 인상·복지 개선’(26.1%), ‘비정규직 인력 채용’(15.4%)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급여 인상·복지 개선’,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외국인 채용 증가’ 등의 방안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자동화’ 등의 순으로, 서비스업은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비정규직 인력 채용’, ‘급여 인상·복지 개선’ 등의 순으로 인력 부족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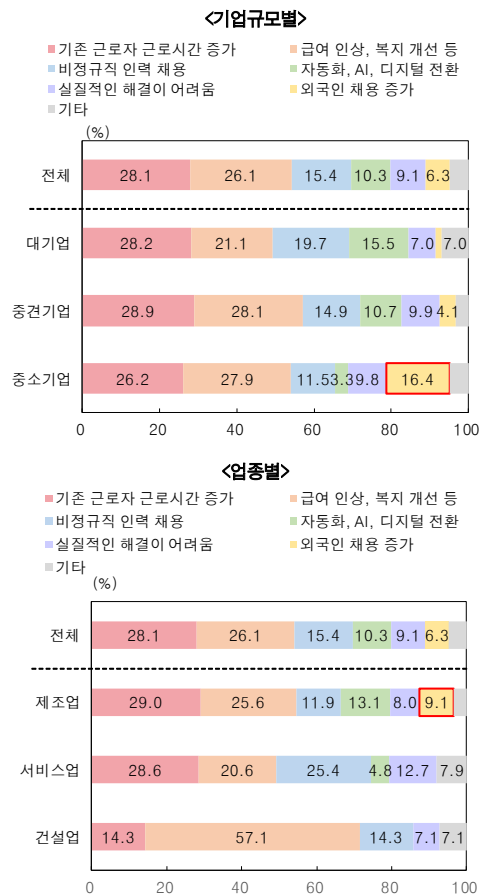
그림 14.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직종



51) 인력수급 불균형 중 기업의 노동수요가 조직자의 노동공급을 초과한 상태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조사하였다.

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은 ‘급여 인상·복지 개선’ 응답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15. 생산 현장특수기능직 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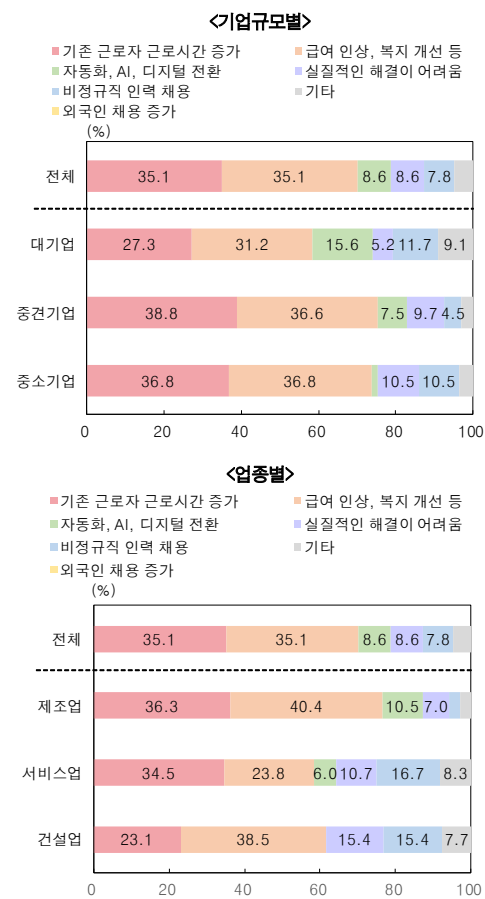


일반 사무직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35.1%) 및 ‘급여 인상·복지 개선’(35.1%), ‘자동화’(8.6%)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로도 주로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와 ‘급여 인상·복지 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기업 제조업체는 ‘자동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소기업 서비스업체 및 건설업체는 ‘비정규직 인력 채용’을 통해 일반 사무직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일반 사무직 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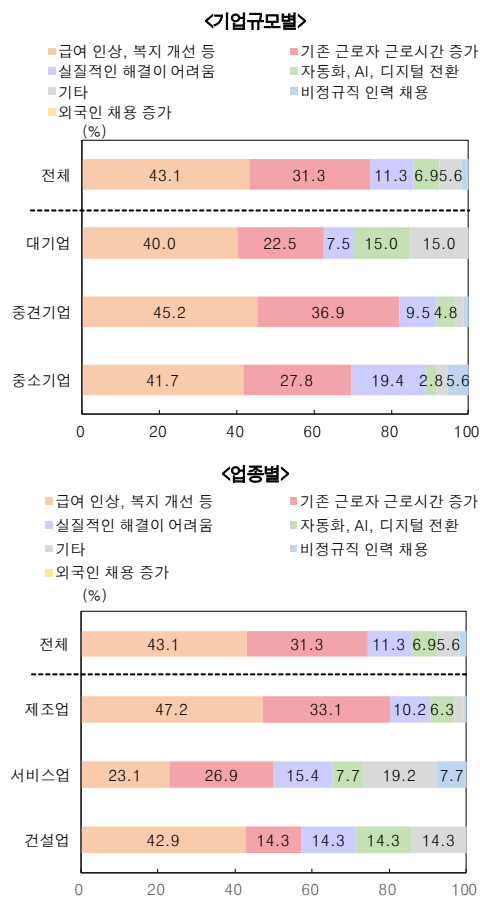


연구개발직 인력 부족 문제는 ‘급여 인상·복지 개선’(43.1%)으로 대응한다는 비중이 여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도 11.2%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도 주로 ‘급여 인상·복지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직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19.4%로 나타나 연구개발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건설업은 ‘급여 인상·복지 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연구개발직 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팬데믹 이전(2019년)에 비해 2023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상당수 업체가 2019년 대비 2023년 채용경쟁률이 하락하였다고 응답하여 기업(노동수요) 및 구직자(노동공급)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조선업 등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업체는 실제 채용 인원수가 채용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제 인력수급 불균형 정도는 채용 인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채용 인원이 채용 정원에 미달한 이유에 대해 채용경쟁률이 낮은 업체들은 지원자 부족으로, 채용경쟁률이 높은 업체들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여 필요한 정원만큼 채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채용 정원이 변동된 업체 중 채용 정원을 확대(노동수요 증가)한 업체가 채용 정원을 축소(노동수요 감소)한 업체를 초과하여, 기업 구인증가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채용 정원을 확대한 가장 주된 이유는 생산·현장·특수 기능직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 제조업

체를 중심으로 정년퇴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사무직 및 연구개발직의 경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도퇴직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 이상의 업체들이 전체 직종 중 생산·현장·특수기능직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은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채용 증가’ 응답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사무직의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주로 ‘기존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 ‘급여 인상·복지 개선’, ‘자동화’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직의 경우 주로 ‘급여 인상·복지 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여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